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0월 16일(수)

윤석열 대통령, 버검 美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

- 한국-노스다코타주 협력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0/16, 수) 오후 「더그 버검(Doug Burgum)」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, 한-노스다코타주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·25 전쟁 당시 약 27,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주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습니다. 대통령은 이어, ‘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’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-노스다코타주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, 노스다코타주는 에너지,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(무인 드론 등)과 미래 산업(수소 생산 등)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. 버검 주지사는 또한,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-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대통령은 아울러, 노스다코타州에 거주하는 2,7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 노스다코타州의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.

버검 주지사는 한미 간 대북 핵 억지력 강화를 다짐한 ‘워싱턴 선언’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버검 주지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,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. <끝>